



백묵련, 손은정, 윤진한, 이미숙, 이혜숙, 한선화, 윤종필, 윤언수, <안녕, 신기촌 사람들>, 2018, 246x121cm

## 미추홀시민아카이브 안녕, 신기촌 사람들

<안녕, 신기촌 사람들>은 다른 구에 비해 재래시장의 수가 많은 미추홀구의 특징을 살려, 신기시장과 그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미지화하여 판에 새기고 온몸으로 눌러 노동하듯 주민들이 직접 찍어낸 작품입니다. 진흥요업(중앙도자기) 입구에서 푸성귀를 팔며 시작된 신기시장, 이주민들이 와서 살았던 10평 쪽방촌, 그리고 현재의 신기시장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POST STAMP



아카이브 보러가기

받는 이

보내는 이